

초등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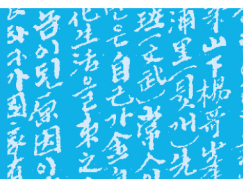
아하! 여기 있었구나

나의 사랑 태극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의 국기 이름을 이야기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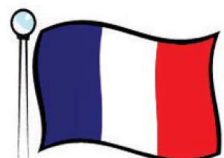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국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국기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라고 해요.



미국 성조기 (Stars and Stripes)



영국 유니언기 (Union Flag)



프랑스 삼색기 (Le drapeau tricol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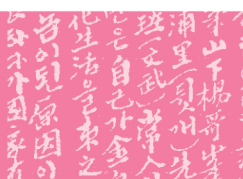
중국 오성홍기 (五星紅旗)



그리스 바다의 기 (Flag of Ocean)



태극기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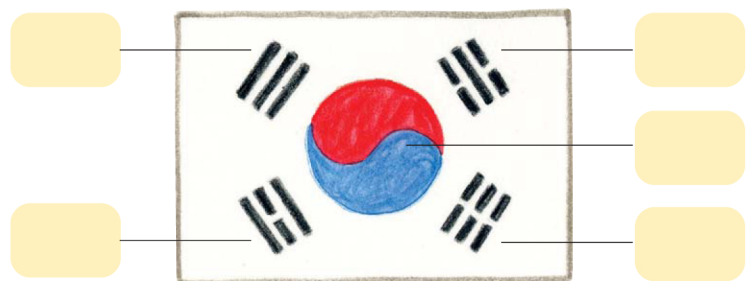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는 흰색 바탕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에는



라는 4괘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지요. 건, 곤, 감, 리는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정의, 풍요, 생명력, 지혜를 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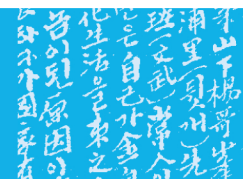


국기 國旗 國 나라(국) 旗 깃발(기) 나라를 상징하도록 정한기

태극기 敵對 太 클(태) 極 다할(극) 旗 깃발(기) 대한민국의 국기



우리는 태극기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태극기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해보도록 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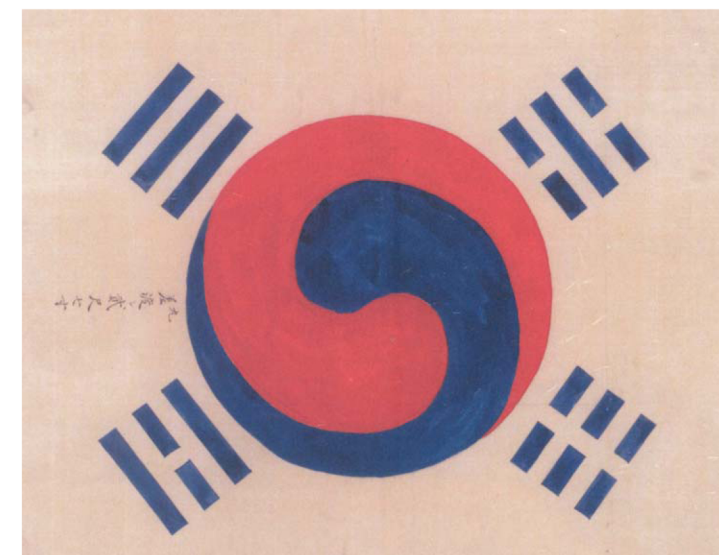


“1875년 초겨울, 고종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일본 배 ‘우요 호’가 아무런 통보없이 강화도에 나타났어요. 조선 군대는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지만, 일본군은 이미 계획되었다는 듯이 대포를 쏘 강화도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결국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안한 대로 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조선은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조약을 맺고 서로 왕래하며 무역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체결]”

국기를 정하는 제도는 서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때만해도 우리나라에는 국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서양 여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서양문물을 받아드리는 과정에서 조선을 대표할 수 있는 국기의 필요성을 깨달았지요.

이렇게 해서 1883년(고종 20) 3월 6일(양력) 공식적으로 조선의 국기가 만들어 졌어요. 그것이 바로 태극기랍니다.

태극기가 제정된 직후부터,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까지의 태극기들은 음양과 4괘의 위치 등이 모두 똑같지는 않았어요. 1883년 공식적으로 발표된 태극기는 비록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태극기가 바로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 자세히 살펴 볼까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문서에 실려 있는 태극기 (1882)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 민족과 기쁨, 슬픔을 함께 하며, 오랜 세월 속에서도 민족의 중심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큰 힘이에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1949년 10월 15일 태극기가 지금의 모양으로 결정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여러 형태의 태극기가 있었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 (193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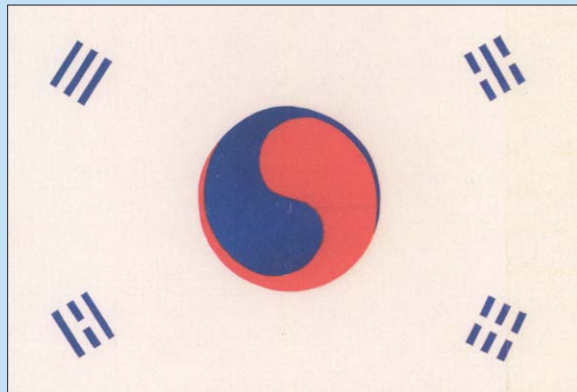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친필이 적힌 태극기 (1942)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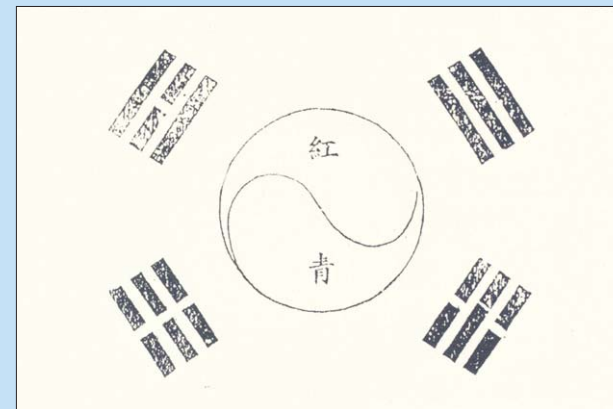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3.1절
제헌절
현충일
국군의 날
국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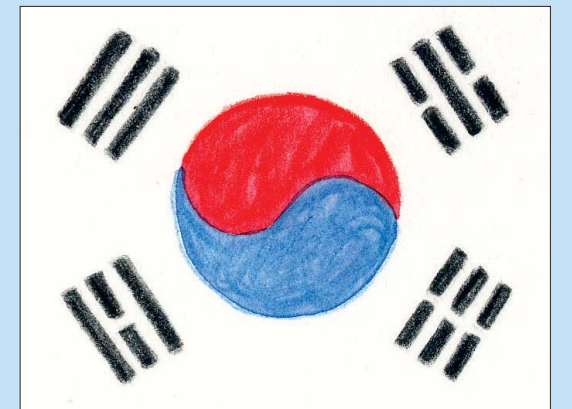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제작한 태극기 (1884)



데니의 태극기 (1890)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제작 규정을 통일한 태극기 (1942)



현재의 태극기 (1948년 제정)



우리는 태극기를 언제 사용할까요?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3.1절
제헌절
현충일
국군의 날
국경일

여러분 주변 환경 속에서 태극기가 있었던 장소를 떠올려봅시다.
혹시 특정한 날짜에 본 기억이 있다면 그 날이 언제인지 말해 봅시다.

★ 이런 날은 꼭 태극기를 달아야해요.

- 국가의 경사로운 날(국경일) : 3.1절 (3월1일), 제헌절 (7월17일), 광복절 (8월15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 각종 기념일 : 현충일 (6월6일), 국군의 날 (10월1일)
- 국장* 기간, 국민장*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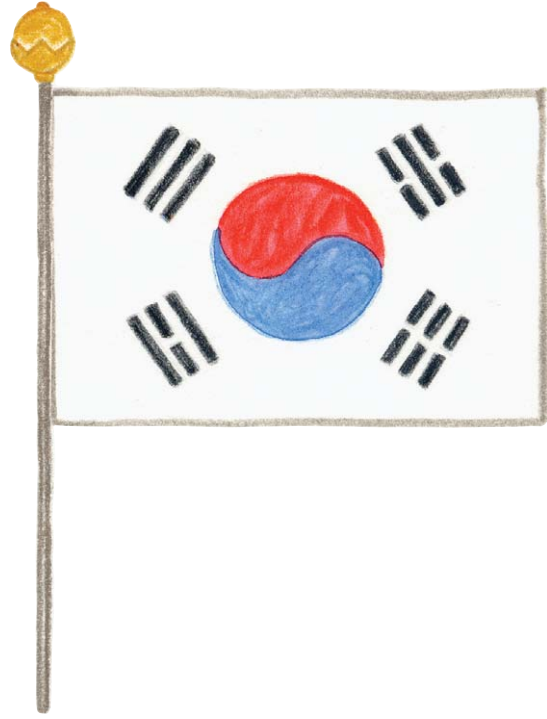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태극기 (1923)



국장 國葬 國 나라(국) 葬 장사지낼(장)
국가의예산으로 치르는 장례

국민장 國民葬 國 나라(국) 民 백성(민) 葬 장사지낼(장)
은국민의이름으로 지내는 장례

★ 위에서 알아본 날에 태극기를 달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쁜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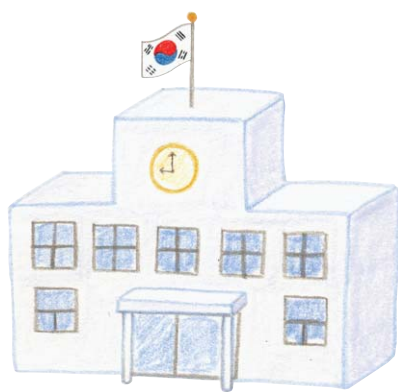
슬픈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달아요.

★ 그럼 이제는 어떤 위치에 달아야 하는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 대문,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 :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게양



건물 : 앞에서 바라보아 땅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벽면 중앙에 게양



차량 :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게양

★ 태극기를 만들어 보세요

